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일 월요일 음 3월 12일 (4물)

백록담

기상정보

맑음



제주에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14°C로, 낮 최고기온은 20-21°C로 예상된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and moonrise/moonset times.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늘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4/24°C, 모레 구름 많음 15/22°C

월드뉴스

중 제조업 수축... "경제회복 험난"

4개월 만에 PMI 49.2로 하락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49.2로 하락하며 4개월 만에 다시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로이터 통신은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을 인용, 중국의 4월 제조업 PMI가 49.2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51.4)를 밑돌았다고 전했다.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월(35.7) 이후 최저 수준인 47.0을 기록했으나 올해 1월 50.1로 회복했고, 2월에는 201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52.6을 찍었다.



중국 항저우 공장.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4월 제조업 활동이 예상외로 위축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와 불안정한 부동산 분야 속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에 나선 중국의 어려움이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풀리면서 억눌렸던 소비 수요로 1분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4.5%)을 보였지만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수요 둔화로 그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김성훈

편집부장

수년간 제주사회가 양분돼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가 국토부에 의해 추진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도내 언론매체에 의해 상세히 취재되고 있는 경청회 소식과 함께 한때 핫했던 소식이 재점화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 아니면 저것. 꼭 선택해야 하나

는 관광객에게 돈을 받아 유발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보자는 게 골자다. 얼마 전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자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문제를 꺼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환경보호를 위한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없지 않다. 관광업계는 "환경오염은 관광산업만의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다"며 제주 관광시장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과 환경보전기여금이라... 공통점은 관광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쪽은 제주행 선택의 폭을 넓혀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는 게 핵심이고 다른 쪽은 폭증하는

관광객에 의해 유발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거론된다는 점이다. 결국 둘이 함께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이다.

정부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형평성'을 내세워 부정적 입장이 다.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 측이 볼 때 입도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당연한 행보다.

반면 제주도는 어떤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도세 부과를 추진한다?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하늘길이 넓어집니다, 제주에 놀러 오세요"라면서 "제주에서 놀며 환경오염을 야기했으니, 돈을 내시오"라는 꼴이다.

제2공항 찬반 양측이 공통적으로 제주도에 주문하는 사항이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정쩡한 시각을 보이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이다.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표명, 단순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도, 저래도 갈등 자체는 해소되지 않을 터다.

더불어 제2공항 건설 찬반 양측도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란다. 왜?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자. "제2공항, 왜 필요하지?" 자신이 처한 상황 모든 것을 던져두고 오로지 제주 미래만을 볼 것을 전제로 한다.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현재 매력과 미래의 경쟁력은 딱 하나다. '청정 제주'. 오고가기 쉬운 제주를 만드는 일,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더 가치를 뒤야 할 것은 환경을 잃지 않는 일 아닐까. 이것 아니면 저것, 꼭 선택을 해야한다. 미래 제주를 위하는 일, 또 다른 대안 찾기도 늦었다 보진 않는다.

열린마당

정도(正道)를 사는 당신이 바로 청렴이다

제주해녀의 발자취, 해녀굿



김현숙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장

롯데를 흥얼거리며 집 차고지로 들어서는 순간 차량 2대 주차 공간에 주차선을 무시한 차 한 대가 정가운데 주차돼 있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한 구간 멀리 주차한 후 기다렸다. 급한 일이 있어 저리 주차할 걸 가야.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30여 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했다.

도를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는데 이웃이 내게 말했다. "차고지 입구에 차를 세우세요." 화를 통제할 수 없었던 나는 참으로 통쾌한 묘안이라 생각했다.

저녁쯤 전화가 올랐다. 차주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전화를 못 받은 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느라 그랬다라며 오히려 당당했다.

날마다 차고지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서면서 정도(正道)란 어휘를 떠올린다. 분노, 억울함, 서러움이 가득한 하루도 그래서 찾아온다. 그래도 그런 날에 정당한 도로 올바른 길을 걷는 당신이, 정도를 살아가는 당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박승빈

제주도청 해녀문화유산과 주무관

제주해녀굿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처음에 누구나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제주해녀굿이란 음력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두 달간 제주도 내 해안가에서 진행되는 굿을 말하며 용왕굿, 영등굿, 해신제, 수신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특히 대표적인 제주영등굿은 도내 해안가 마을의 분향당에서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이해 풍어 및 해상안전과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전복·미역 등의 풍성을 기원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제주목 풍속초',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중국 고서 '산해경 대항북경' 편에 제주영등굿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자부심과 자긍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제주해녀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해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촌계별 해녀굿의 특징과 형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제주해녀들의 독특한 전통문화로 계승돼야 한다. 기억과 증언을 채록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부러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제주해녀의 뿌리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채록 및 보존해 새로운 차원의 인식으로 전환시킬 때 우리의 미래는 열린 것이다.

Advertisement for '감굴 포트묘목 분양' (Mint and Port seedling distribution) with product list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민성종묘' (Minseong Seedling) with product list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한림종묘사' (Hanlim Seedling Co.) with product list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자원종묘' (Jawon Seedling) with product list and contact info.